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미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 둘로 보지 않아야 살림 잘할 수 있어

여러분의 어느 질문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보잘 것 없다고 해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 저런 질문을 할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게 있거든요.

되지도 않는 데서 되는 것을 알게 되고, 되는 데서 안되는 것을 알게 되며, 둘다 보지 않으면 안되고 되고 안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만물·만생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따져본다면 한 가정뿐이 아니라 한 몸에서도 수십 억의 중생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들지도 못하고 잘못 알 뿐이지, 날아 다니는 새, 꽃 한송이, 풀 한포기 어느 것 하나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 가면 자기가 미국말을 못해서 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못해서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못듣는 생각을 안하고 그쪽에서 못한다고 알고 있던 말입니다. 얼굴에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뜻이 있듯이 모두 돌아가는 자체가 한 몸에서 그와 같이 돌아가는 거지요. 밖에서 소리가 나면 열린 눈을 돌리는 동시에 귀로 듣기도 합니다. 그리



그림·최주현

**남 원망없고 내탓으로 돌려야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고  
계율과 질서를 지키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스티는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둘로 보지 말고 다스려야 화해서 나뉘며,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안과 밖의 살림살이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선업·악업의 업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악한 것은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을 건강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말하죠. 과거의 모든 업이 속명통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 인연에 따라서 현실로 나타나 나온다고요. 그러나 나오는 대로 거기에 다시 되팔려 놓으면 앞서의 입력된 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고 판단도 내립니다. 그러나 이름은 따로 따로일 망정 동시인 것이죠.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갑니다. 한마음에다 한 데 뭉쳐 말해 놓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름이야 주인공, 불성, 자성본래불, 영원한 친구,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기도 하는 등 별의별 이름이 다 있지만 원래 뜻은 하나죠.

여러분도 가정에서 별의별 이름을 다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애, 아무개야" 하고 부모님이 부르시면, "에" 하고 아들이 되고, "여보" 하고 부인이 부르시면 "응, 왜그래" 하며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고 자식이 부르시면 금방 "지금 들어 오니" 하면서 부모가 되듯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멋진 묘법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만 있다면 두뇌를 통해서 사대로 통신이 되는데 사대로 통신이 되며 들고 나면서 하나의 생각이 수십만 개의 입자가 되어 일을 하거든요.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무심과 유심이 작용을 해야만 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같이 작용을 해야만 100%의 불이 들어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전력은 하나지만 끌어쓰기 위해서는 줄과 줄을 이어야 불이 들어오죠. 그

## 되고 안되고가 없는 줄 알아야 業 다스려 진정한 자비란 조건없이 베푸는 사랑

래서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전이 되고 또 창조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작용하는 도리를 알아야 그 하나도 작용하는 게 없는 것을 알게 되며, 너무 많이 화해서 할나할나 돌아가기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공법'을 말하죠.

**또** 이야기합니다만, 남을 원망하지 않고 모두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라면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계율과 질서를 지키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래라고 차이를 두고 '내가 이만큼 아까 너는 내 아래야 할 게 아니라 내 아래가 바로 내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내 아래라고 하나 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고, 잘 하는 것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아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잘잘못을 논의한다면 부처님의 말씀치도 못 좇아갑니다. 부처님의 모습은 없다 할 지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한 부처님의 모습도 계신 겁니다.

풀 한포기가 살아 있어도 부처님은 계시는 것이며, 지수화중이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세'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요, 여러분 행이 부처님 행이며,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화해서 돌아가는 부처님의 나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기능이 제 아무리 유용하고 위대하다 해도 사람이 작동해야 컴퓨터의 능력이 발휘되는 반면에, 컴퓨터는 사람의 마음을 짊어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능가할 수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삼천년 전부터 이 마음을 떠나서는 일체 만법을 행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하기도 못하고, 법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비란 무조건 내 탓으로 돌리고 조건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야 마음과 마음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한군데에 뭉쳐서 놓는 작업을 열심히 하십시오. 모든 것을 닦치는 대로 거기에 맡겨 놓으므로 다시 생신이 되어서 나옵니다. 용광로에다 넣는 작업을 하면

생신이 되는 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연탄도 재료를 몰아서 넣으니까 차곡차곡 연탄이 되어 나오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같이 만들지만 집집마다 배달할 때는 나뉘어서 각자 운반되듯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입니다.

비가 내리면 식물이나 동물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이 다 먹지만 감사하게 생각해 본 예가 없고, 불도 감사하게 쓸 줄 모르고, 바람·공기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밟고 다니는 흙에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나 아님이 없습니다. 독불장군처럼 내가 잘나서 산다고 한다면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땅을 밟고 다니지도 말며,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하겠죠. 이 말의 뜻을 잘 새기셔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 세는 현실의 싸이 돼서 그 싸에 열매가 열려서 그 열매 속에 씨가 들어 있는데, 그란줄 모르고 과거로 돌아가서 씨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이게 뭐고?' 하다가는 10년, 20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장본인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니, 거기에서 해결하고, 나 아닌 내가 있음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놓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생인연 내생에도 만났으면

문 저는 부모님께 효도도 못했고 집안 어른이나 형제들에게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두에게 잘하고 싶군요. 만일 돈을 번다면 욕심내지 않고 저희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쓰일 곳에 쓸 수 있도록 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스님, 다음 생에는 저희 부모 부부 형제 좋은 이웃들이 모두 좋은 몸과 마음으로 다시 만나서 몸과 마음이 이쁜 사람들에게 침술과 음성공양을 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제 식당에 들어오는 모든 동물들도 다음 생애 좋은 사람의 몸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드리고 또 말씀 드리고, 그렇게 아흔아홉번 말씀 드리고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백번백천 알아들을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여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생활 속의 불교 189

##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 있다.

관념이란 허공과 같은 것인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관념에 걸리기도 하고 사로잡히기도 한다.

허공에 걸려 넘어졌다거나 허공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모두들 웃을 일이나 실재로 그러한 일이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자기 마음으로 막을 지어 놓고 그 막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는 막도 없고 걸려 넘어질 문지방도 없는 것인데 스스로 막을 짓고 문지방을 지어 놓고 있다.

누가 고정시킬래야 고정시킬 수 있는 게 본래로 있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으로써 대상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해 놓고는 공연히 거기에 붙잡혀 있다.

통에서 벗어나야 통을 굴릴 수가 있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통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 통을 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 보면 그동안 애지중지 해오던 나의 생각, 나의 법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도 알게 된다.

마음이란 체가 없기에 우주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이니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도 벗어나고 굴레에서도 벗어나고 항상 없는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는가.

고정되게 붙들고 있는 관념을 부숴 버려라. 내가 죄를 졌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따위의 관념을 다 버려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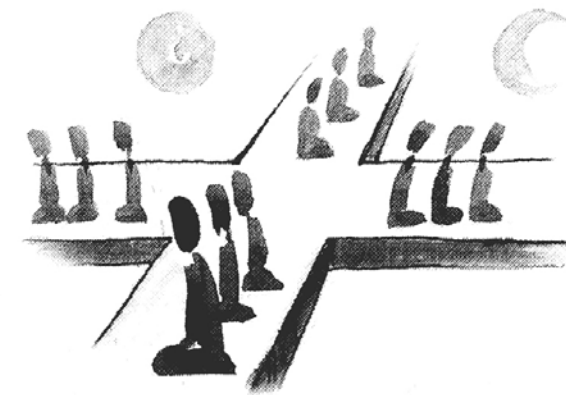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벽인 것이다.

놓는다는 것은 번뇌뿐 아니라 '생각으로 짓는 모든 관념을 타파하라'는 뜻이다. 너니 나니, 높으니 낮으니 하는 관념이 얼마나 많은가. 모두 자기가 지어 놓은 것들인데 그런 관념을 들고 있어서는 도무지 주인공과 결합할 수가 없다. 모르면 안으로 굴러 다시 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적으로 이렇게 확답을 짓고 저렇게

결정을 내려 버리는 경향이 짙다. 그러한 버릇이 없어야 한다. 모름지기 이 공부부를 하려면 안으로 놓고 또 놓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산 정상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무거운 짐을 갈수록 더 짊어져 가면서 오르다보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겠는가. 그와 같아서 올라갈 때는 다 놓고 올라가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오직 물러서, 나는 아직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내게는 어려워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라는 애착을 떨쳐 버려야 놓고 가는 것이다.

기록교에서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짐을 벗어 놓고 편히 쉬라.' 하듯이 주인공에게 몽땅 놓아 버리면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그 항상 없는 감옥에서 절로 풀려난다.



나뭇잎이 나오는 대로 그것을 따 버리고, 나뭇가지를 자주 잘라 낸다면 결국 나무는 시들어 죽게 되겠지만, 더러는 뿌리가 살아서 새싹이 나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아 버린다면 그 나무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하근기의 수행자는 나뭇잎을 따내고 상근기의 수행자는 뿌리를 뽑아 낸다.

'나'라는 자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다 공했으니 놓는 자리가 그 자리다. 머리로 공한 줄 알고 놓는다 하지만 앞설 것이 뒤서고 뒤설 것이 앞서니까 공한 줄 알면서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무지하여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낫다.

생각나기 이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생각나기 이전은 생각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심을 버리고 일체 경계를 다 본래 자리로 맡겨 놓으라는 것이다.

날기 전에 이를 붙이는 것을 보았는가. 날기 전으로 돌아가라. 날기 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놓아 버리는데 거기에 이를 붙을 사이가 있겠는가.

6식이 이렇다더다. 7식이 이렇다더다 하고 따지려 하면 그런 데 고달려서 끝내 붙일 줄 못 볼 것이다. 그러기에 그런 말 저런 말,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속 빼고 일체를 주인공이 내고 돌린다 하여 바로 놓고 들라는 것이다. 주인공이 내고

돌리고 하는 게 바로 인연법이니 그냥 일직선으로 쏘살같이 인연법으로 들어가 는 것이다.

나는 왜 신심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 다지도 망상이 많을까? 나는 왜 공부가 늦나? 나는 왜 참선하는 일의가 부족할까? 나는 왜 주인공 참구를 곧잘 놓치는 것일까? 나는 왜 놓는 것이 잘 안되는가? 그런 모든 걱정, 겸손한 마음까지도 다 쉬어라. 그냥 믿고 놓으면 잘 가게 되는 것을 공연히 생각을 지어서 걱정하고 조바심하고 용기를 잃고 하니가 오히려 갈 수 없게 된다. 공부가 안된다고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생각도 놓고 편안히 자연스럽게 가라.

다리 많은 지내가 잘 가다가 문득 제 꼴을 보고는 '야,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해서 서로 엉키지도 않고 잘 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리가 서로 엉켜서 갈 수 없다고 한다.

"환으로 보아라." 하는 것도 실은 걸리는 것이다. 본래로 환인 것이니 환으로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돌부처한테 시집 장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것을 주인공에 놓아라.

협찬 한국테크라인(주)